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 온 힘

전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 맞춤형학습지원학급 도입교사 만남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맞춤형학습지원학급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활동을 지원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교사

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력 향상 신규 정책이다. 작년 하반기 사전신청 교사와 올해 4월 신규신청 교사 중 지원대상으로 208개의 학급을 선정했다.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초등2학년 첫걸음지원학급 등 다른 기초학력 지원을 받지 않는 학급을 우선 선발해 기초학력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방점을 뒀고, 기 지원학교 학급 중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거나 학습더딤학생

이 많은 학급을 일부 지원한다. 선정학급에는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담임교사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자존감 회복·포괄학습·사제동행 등 관계개선 프로그램 및 그림책·동화책 등을 활용한 학습더딤학생 참여중심 수업 운영, 학습더딤 원인 심층진단 및 치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담임교사 만남의 날에는 선정학급의

교사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취지를 안내하고, 같은 고민을 가진 교사들이 서로 소통·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학급 운영의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운영은 무기력한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활동 중심의 수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또래간 관계개선 지원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하림beSTAR 제1기 교육과정에 전주대 22명의 학생이 최종합격했다.

전북대 박울진 교수 전통조경학회 회장 선출

전북대학교 박울진 교수(환경생명자원대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사진)가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제21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1980년 창립된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전통조경문화를 조사·연구해 그 사상과 기법을 보존·전승하며, 현대 정원 문화를 발전시켜 조경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는 조경분야 대표 학회다.

현재 관련 분야에서 1,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발간하는 학술지(국문판 4회, 영문판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박울진 교수는 "내년은 학회가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큼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해 한국전통조경 문화강화 개실, 전통조경 설계·시공, 식물관리 등 실무교재개발, 주제별 국내외 학술답사 기능 보강 등에 노력하겠다"며 "또한 회원 네트워크 강화와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고,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울진 교수는 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학 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조경학회 부회장 및 호남지회장을 역임 한 바 있다.

현재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부회장,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는 '신조경사학', '신조경관리학', '함께하는 만드는 정원', '정원과 도시녹화' 등이 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이 최근 초등교사들의 교육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연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아이들의 표현력 끌어낸다

도교육청, 초등교사 교육연구 직무연수 실시로 수업개선 나서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는 교육연구를 통해 초등교실 수업개선에 나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개정교육과정 초등5~6학년 국어 교과서 연극 단원이 신설됨에 따라 초등교사들의 교육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극지도 방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교사 교육연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연극의 기본이 되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아이들의 자발성과 표현력을 끌어내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통해 다양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지난 7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김소연 교사(전주초등학교)의 '교육연구의 이해, 교실에서 활용하는 연극놀이' 강연에 이어, 10~11일에는 최지영

강사가 나서 '연극으로의 초대, 나로부터 출발하는 움직임 표현, 다양한 연극놀이로 이야기 만들기, 대본 없는 연극 만들기'를 주제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최진호 교사(익산 오산초)는 "연극은 상호작용이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경청하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무엇보다 역동적인 표현과 사고로 살아있는 교실수업,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단하 교사(김제초)는 "연극은 오감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교육연구를 역사나 문화 등 다양한 수업에 접목해서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정희 교사(이리 모현초)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고 교우관계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관계도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연구에서 쓰이는 연극기법은 다양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뿐 아니라 학급 운영에도 효과적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연구이란 연극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연극적 요소를 활용해 교육을 돕는 것이다. 아이들이 상황에 몰입하고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육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해 재미있고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산학협력 친화형 인재 양성

전주대,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22명 합격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에서는 하림beSTAR 제1기 교육과정에 22명의 학생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 인력수요에 따라 전주대 2학년 학생을 적성에 맞는 직무에 조기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시 취업으로 연계하는 채용연계형 산학교육과정이다.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력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개월간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하림그룹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등 하림그룹의 공개 선발 절차에 준하여 학생을 선발했다.

그 결과 IT, 공무설비, 생산관리, 물류, 홍보 등 하림그룹 14개 직무에 22명의 학생이 최종합격 되었으며, 이들은 산학교육과정 수료 후 (주)하림식품, NS홈쇼핑, 선진포크, 팜스코 등 하림그룹에 2022년 입사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전주대-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설계한 기업맞춤형 전공교육과정과 함께 4차 산업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창의융합,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하림그룹 계열사에서 현장맞춤형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참여 학생을 선발하여 하림beSTAR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적성중심의 우수 인재 육성과 채용으로 연계되는 산학협력 친화형 인재 양성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2017년부터 사회 및 산업이 요구하는 시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합전공으로 구성된 단과대학인 '수퍼스타칼리지'를 신설하고 하림산학융합전공 등 15개의 융합전공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 중국 충칭시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은 중국 충칭시교육위원회와 5층 정책협약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슈아이순 충칭시교육위원회 부수시원 및 충칭시 대학관계자, 최영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학생 교류 등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충칭시 교육관계자들의 방문을 환영하

다. 충칭시는 마지막 임시정부가 위치한 곳으로 대한민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지역"이라며, "앞으로 충칭시와 전북교육청이 교육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슈아이순 부수시원은 "충칭시는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에 이어 올해 초등과 중등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와의 교육협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초·중·고교와 중국학교 간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